

경기도 정도(定道) 600년 역사와 비전

- 작성 이현우 / 자치경영연구실 연구위원
(yhw3873@gri.kr, 031-250-3515)

목 차

쟁점과 대안

- I. 경기도의 위상
- II. 경기도 지방제도의 역사
- III. 경기도 600년의 역사적 의미
- IV. 경기도의 미래와 비전

- 「이슈 &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 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과거의 경기도가 지역적·행정적 기능면에서 서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면, 통일 시대의 경기도는 남북교류와 민족발전의 교량역할을 할 것이며, 민족의 생산·발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종속적 사고로부터 탈피하고 자주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 사고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앞당기고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첩경은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탄탄한 실현이며, 이제 경기도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발전·지역개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족자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21세기는 민족의 장래를 책임진다는 역사적 책무를 자임할 때 비로소 그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도사편찬위원회(1997) -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

쟁점과 대안

2014년은 태종 14년(1414)에 경기도가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으로 정해지고, 경기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고려의 통일 이후 경기지역은 우리 역사의 중심지였고, 조선 건국이후 8도 체제의 정착과 함께 경기도 지방이 확립되었다. 조선시대 지방통치조직으로는 각 도에 최고책임자인 관찰사를 두었으며, 그 전통에 따른다면 현재의 경기도지사는 제689번째 관찰사가 된다.

오늘날의 경기도는 약 1,200만명이 넘는 인구와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20%(251조원(2012))를 차지하는 거대 광역자치단체로 성장하였고, 이는 2011년 OECD 34개국과 비교하면 27위(2,010억달러, 뉴질랜드(28위), 헝가리(29위))를 차지하는 규모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삼국과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한국 근대화의 역사·문화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나아가, 다가 올 통일시대에 남북교류와 민족발전의 교량으로 민족의 성장과 발전의 중심지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경기도 정도 6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조선시대 모든 길은 경기도로 통하고, 그 길은 치도(治道), 왕도(王道)로 사통팔달의 열린 공간이었다. 경기도의 강은 한강, 임진강, 안성천이 서해로 흘러 한강과 임진강이 하나 되는 곳으로 문화의 전파와 외적 침입의 중요한 통로로 이용되었다. 둘째, 팔도의 사람과 정보, 문화가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이었다. 과거부터 전국 팔도의 물자와 사람이 모여들어 상업적 농업과 상업,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거점으로 경인공업 지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견인차(牽引車)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성리학과 실사구시의 실학, 서학 등의 학문 및 사상의 흐름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구심력있고 통일적인 모습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도의 정체성을 '경(京)의 기(畿)'에서 '아시아의 기(畿)'를 지향, 둘째, 통일 후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가 통일 한국의 중심무대로 도약, 셋째,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경기도의 전통과 특색을 담은 문화의 상징으로 발전, 넷째, 지방분권의 첨병이자 보루로 지방자치·재정분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I. 경기도의 위상

경기도의 지리적 환경

- 한반도, 아시아, 세계 차원에서 지리적 중심, 역사적 전통 등을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가 발달
 -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중심 국가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
 - 사람들의 생활이 자연조건에 크게 좌우되던 국가 성립 이전 시기의 경기도 일대는 강과 해안지역을 따라 사람들이 이동하고 교류하고 거주¹⁾
 - 삼국시대 이래 백제·고구려·신라는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시로 각축
 -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왕도를 보위하고 왕실을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서 정치·경제·문화·군사의 중심지
 -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金鷄抱卵)의 형국²⁾, 한강변과 임진강변의 비옥한 땅, 물길, 들길, 바닷길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으로 근대화의 중심지

<경기(京畿)의 역사적 의미>

우리나라 역사에서 '경기(京畿)'라는 명칭은 995년(고려 성종 14) 개경 주변에 6개의 적현(赤縣)과 7개의 기현(畿縣)을 직할지로 삼아 관리하였고, 이후 1018년(고려 현종 9)에 적현과 기현의 12개 현을 통합하여 왕도의 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京畿)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등장하였다. 본래 '경기(京畿)'라는 말은 당나라 때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京縣 또는 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하던 데서 유래한다. '경(京)'은 '천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의미하고, '기(畿)'는 '천자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왕도의 외곽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경기도(京畿道)'는 고려 현종때 개성지역을 경기라 칭하고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개성부가 설치된 이후, 조선조에 들어와 여러 차례 개·폐 과정을 거친 후 태종 14년(1414년)에 이르러서 전국이 8도 체제³⁾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세종 16년(1434년)에 이르러서야 조선왕조의 주변지역이 경기도로 확립되었다. 이처럼 경기의 '기(畿)'는 '경(京)'의 주변부라는 의미로서 정치·지리적 중심에 대한 배후지, 주체가 아닌 객체 역할을 해왔다. 또한 경기는 전국의 물산과 정보, 인적 자원의 집결과 재분배가 이루어졌던 곳이며,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을 중재, 치유하던 곳이다. 경기는 경(京)을 포함한 국토의 전 영역에 대해 모든 자원을 순환시키는 원심과 구심이 동시에 작용하는 핵심 지역이라는 역사적 재인식이 필요하다.

자료 : 이달호·서은영(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 : 경기도 연혁』,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 그 결과,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 빗살무늬토기(미사리·암사동 유적), 웅진군 시도(矢島), 패종(貝塚) 유적 등 신석기 유적, 여주 혼암리 청동기 유적 등이 여러 곳에 산재.
 2) “육지·물길을 잇는 신문명 통로, 수도 품은 ‘천년 왕도’의 땅”, 인천일보(2012.06.06).
 3) 조선(태종)의 8도 정비 :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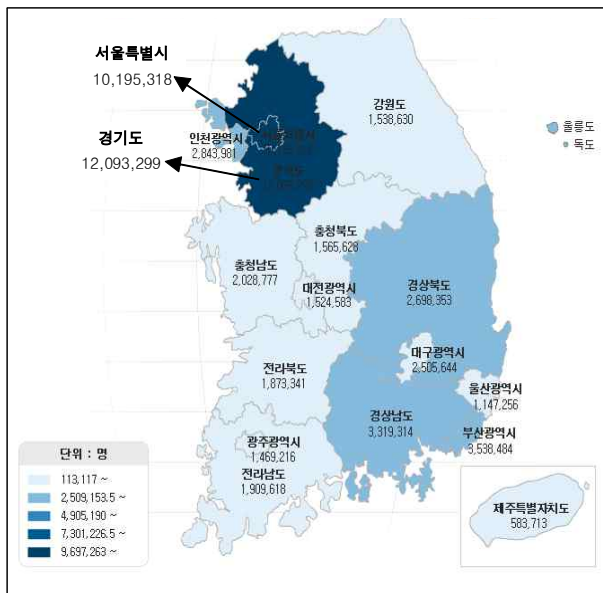
□ 현재 경기도는 약 1,200만명이 넘는 인구나 전국의 12%에 가까운 면적, 전국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 도로 성장

○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 1위, 재정자립도 증가율 6위, 경제성장률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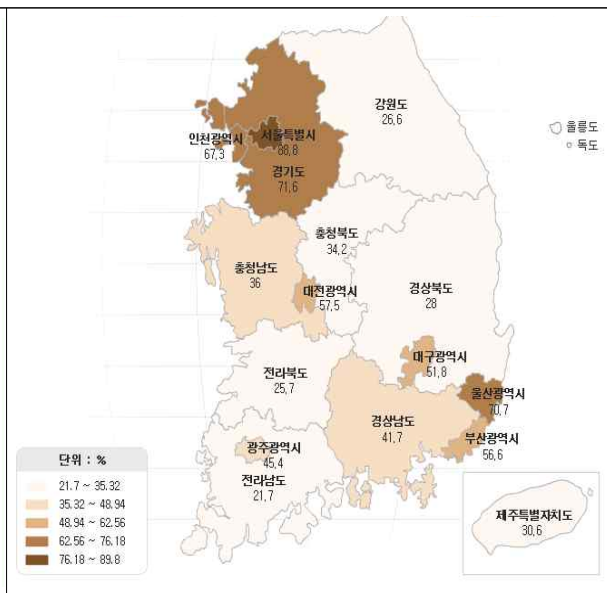
- 전국 인구의 증가율이 0.5% 미만인 반면,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은 2.1%로 2012년 기준 12,093,299명이며,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음

- 2013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1.6%로 전국 2위(1위 서울 88.8%), 지난 10년간 0.4% 증가(전국 증가율 -1.0%)

<전국 시도 인구(2012)>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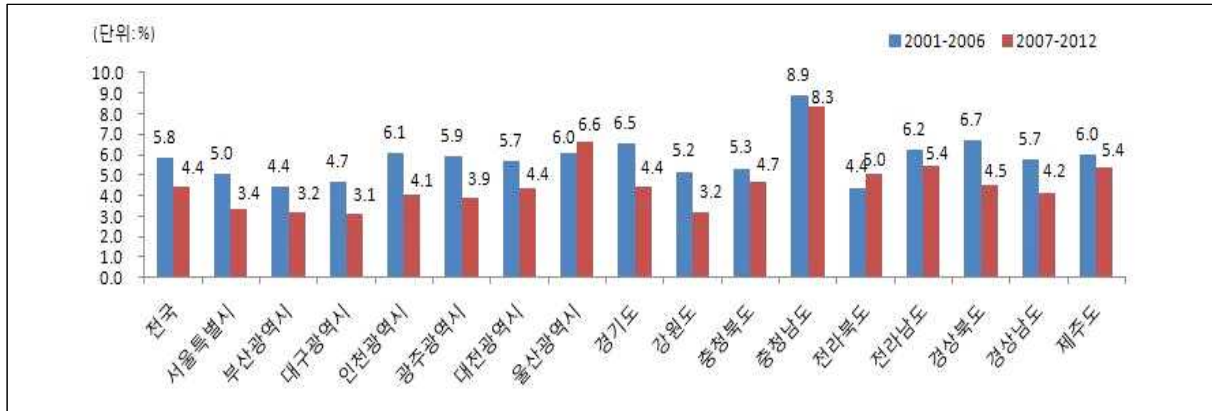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www.kostat.go.kr).

○ 2001~06년, 2007~12년 5년간 연평균 GRDP 성장률은 각각 6.5%, 4.4%로, 전국 평균 성장률(GDP) 각각 5.8%, 4.4%를 상회, 충남에 이어 2위

- 2000년대 후반에는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하락

<지역별 5년간 평균 GR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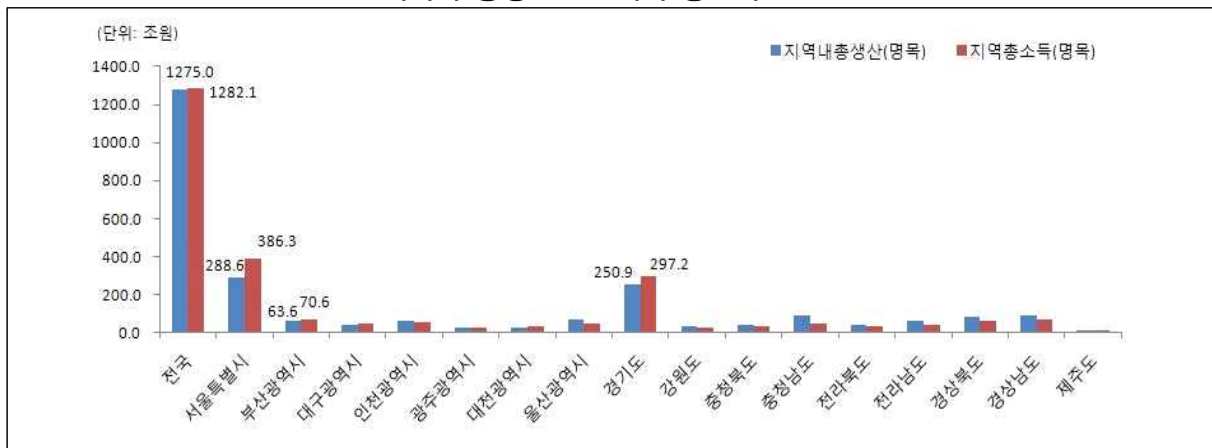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www.kostat.go.kr).

○ 특히,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명목 지역총소득은 297.2조원, 전국의 23.2%로 전국 2위(1위 서울 30.1%)를 차지

- 지역내총생산액(GRDP, 250.9조원) 대비 118.5%로 지역내총생산액 보다 지역총소득이 많음
- 이는 경기도민이 경기지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외국인 및 타 시·도민이 경기도에서 벌어나간 소득보다 많음을 의미

<지역내 총생산 vs 지역 총소득(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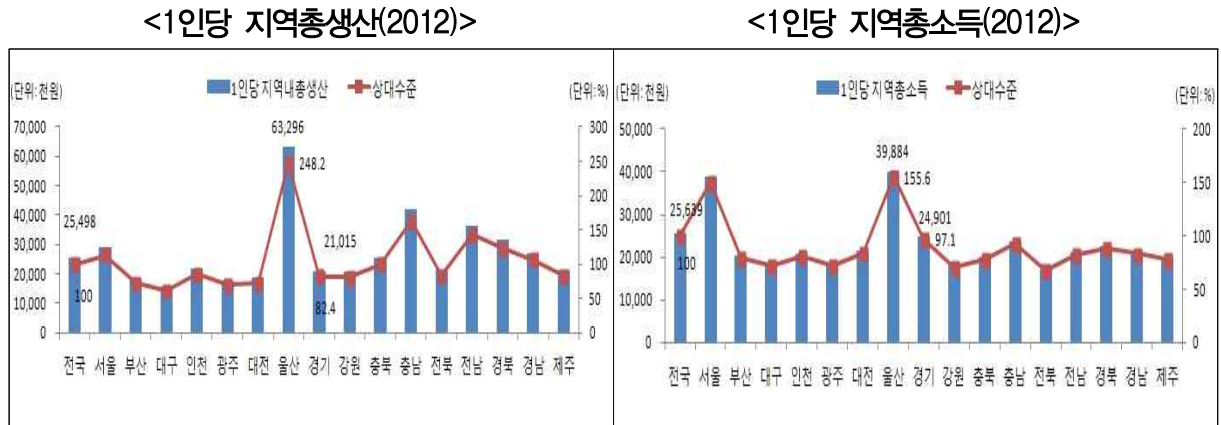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www.kostat.go.kr).

○ 경기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12년 21,015천원(18,649달러)로 전국 평균(25,498천원) 대비 82%로 11위

- 1위는 울산 63,296천원(56,169달러)로 전국 평균(25,498천원) 대비 248.2%

○ 경기도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12년 24,901천원(22,097달러)로 전국 평균(25,639천원) 대비 97.1%로 3위

- 1위는 울산 39,884천원(35,396달러)로 전국 평균 (25,639천원) 대비 155.6%



자료 : 통계청(www.kostat.go.kr).

한반도 역사 · 문화의 중심지

□ 삼국시대와 고려 · 조선시대를 거쳐 한국 근대화의 역사 ·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

○ 수원화성, 동구릉, 용릉, 건릉 등 31기의 조선왕릉, 경기민요, 광주 백자, 안성유기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

- 성곽문화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닌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성곽의 장점만을 흡수해 조선최초로 설계도를 근거로 건설된 도시성곽

- 조선시대 전체 왕릉 42기 중 남한에 있는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당대 최고의 예술과 기술을 집약시킨 문화유산이며, 이중 31기가 경기도에 위치(개성 2기, 영월 1기, 서울 8기)

- 경기도 광주에 조선왕실 그릇을 담당한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되면서 최상품의 백자를 생산하는 명품 도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

○ 명재상, 외교관, 학자 등 인재 배출과 성리학과 실학, 양명학, 서학 등 학문과 사상의 발전 무대

- 개혁 군주 정조 대왕, 개혁정치인 정도전과 조광조, 명재상 황희, 명외교가 서희, 대학자 이이와 이익, 나라를 구한 윤관과 최영, 실학의 완성자 정약용, 여성인물 명성황후와 허난설헌 등

-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이종환은 '택리지(擇里志)'에서 "300년 동안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고 수많은 학자를 배출한 엄연한 하나의 중화(中華)였다."고 경기도를 평가4)

□ 다가 올 통일시대의 남북교류와 민족발전의 교량으로 민족의 성장·발전에 중심지5)

○ 이데올로기 전쟁의 현장이며,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라는 세계화된 문화자산은 남북통일의 길목으로 부각

- 남북관계가 긴장과 대립, 화해와 교류가 교차하기도 하고 병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의 길목으로 전환

○ 분단의 상징이 아닌 통일의 상징으로서,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노력

<수원화성 장안문>



<용릉>



<비무장지대>



자료 : 네이버 어린이백과(<http://terms.naver.com/list.nhn?cid=3061&categoryId=3061&categoryType=dictionary>);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4) 경기도(2008). 『경기도 바로알기』, p.22.

5) 경기도사편찬위원회(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 pp.430-431.

II. 경기도 지방제도의 역사

조선 초기, 8도 체제의 정착과 경기도의 성립

□ 고려의 통일 이후 경기지역은 우리 역사의 중심지였고, 조선 건국 이후 오늘과 같은 경기도 지방으로 확정

○ 고려 현종 때 개성지역을 경기라 칭하고, 이를 태종 14년(1414년)에 전국을 8도로 나누고, 16년(1434년)에 조선왕조 주변지역이 경기로 확립

- 고려 후기부터 대두한 신진사대부 세력은 1388년 위화도회군과 1391년 토지 개혁인 과전법 실시로 정권을 장악, 다음해 조선을 건국
- 1394년(태조 3) 11월에 수도를 한양으로 결정하면서 경기지역을 재조정⁶⁾
- 태조 연간 개편에서는 경기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으나, 1414년(태종 14) 전국적인 8도 체제를 시행하면서 경기도를 합치고, 수원 또는 광주에 감영을 두고 관찰사를 파견(태종실록 제27권)
- 1434년(세종 16)에 경기도에 속했던 철원을 강원도에, 충청도에 속했던 안성을 경기도에 속하게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경기도 지방이 완성

<경기지방 변천도(고려시대)>



<경기지방 변천도(조선시대)>



자료 : 경기도사편찬위원회(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

6) 이는 국가 통제가 용이하도록 '과전은 경기에만 설치한다(科田京畿)'는 과전법 시행원칙 때문에 경기지역의 확장 필요성이 있었고, 차제에 중앙집권력을 먼·리 지역까지 넓히기 위한 군·현의 통폐합까지 추진하려 했기 때문.

□ 조선시대, 8도 체제 아래 경기도는 국왕과 중앙정부가 있는 수도의 주변 지역을 담당하는 도(道)로 편재

-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군현이 한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분포
- 경기도는 중앙 직할시로서 경도인 한성부와 별도인 개성부·수원부·강화부·광주부의 4부, 도·부·목·군·현의 2등급으로 구분
- 경기도에는 수도권 방어에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하던 독립적인 지방 단위로 개성·강화·광주·수원 4개 유수부(留守府)가 존재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 변천과정>

| 구 분 | 구역변화 | 관직 변화 | 소재지 | |
|-----------|---|--|---|--|
| 한성부 | 태조 3년에 도성이 됨 중앙 직할이었음 | 서열 : 6조 다음의 7위 태조초 판사이원 예종원년 판윤(정2) 좌우윤(종2) 서윤(종4) 판관(종5) | | |
| 사 부 (四 府) | 개성 | 태조 3년에 천도후유후사(遷都後留後司)를 둬 중앙 직할 | 세종 20년 유수 예종대 경관직으로 됨 (종2) 경력(종4) | |
| | 강화 | 인조 5년 유수부로 비변사의 구성원(중앙 직할) | 인조 5년 유수(종2) 경력(종4) | |
| | 수원 | 인조 5년에 유수부로 됨 비변사의 구성원(중앙 직할) | 인조 17년 유수(종2) 판관(종5) | |
| | 광주 | 정조 19년에 유수부로 됨 비변사의 구성원(중앙 직할) | 정조 19년 유수(정2) 판관(종5) | |
| 경기도 | 개성을 중심으로 토산, 파평, 강음, 우봉 등 근경 공양왕 2년: 남양, 영주, 부평, 강화, 포천, 연천, 철원, 이천, 곡산, 도안, 서여, 재영, 연백을 합함 태조원년: 평주, 수안, 곡천, 재영, 서여, 신여, 협부를 사해도로 보내고 나머지 좌·우도를 가름 태종 2년: 좌·우도를 합함 태종 13년: 연안, 백천, 우봉, 강음, 여산을 사해 도로 보내고 충청도로부터 안성, 양지, 양성, 음죽을, 강원도로부터 가평을 편입 세종 16년: 철원, 안내를 강원도에 편입 고종 32년: 충청도 평택을 경기도에 편입 | 태조원년: 도관찰점척사리 태종 2년 좌·우도함해 관찰사리 태종 13년: 도관찰사점척사리 세조 1년 이강: 관찰사 고종 32년: 한성부관찰사 고종 33년: 경기도 관찰사 | 서울 사대문 밖 | |

자료 : 내무부(1987). 『한국지방행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도(道)의 최고책임자는 관찰사(觀察使 : 감사), 도의 행정·사법·군사의 전권을 행사, 소속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는 권한

- 조선시대의 지방통치조직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에 관찰사(觀察使)를 두었으며, 도의 밑에는 350개 미만의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의 각 읍(邑)을 둠
-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경기관찰사는 4개의 목(牧)과 7개의 도호부(都護府), 7개의 군(郡), 19개의 현(縣) 등 37개 고을을 다스림⁷⁾

<관찰사란?>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된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외헌(外憲)·도선생(道先生)·영문선생(營門先生) 등으로도 불렸다. 고려의 안렴사(按廉使)·안찰사(按察使)의 후신으로 조선 초기에는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안렴사 등으로 불리다가 관찰사로 굳어진 것은 1466년(세조 12)이다.

관찰사의 임기는 조선 초기에 1년이었던가 후에 2년으로 되었으며, 고려말 4~6품의 관리가 임명되던 것을 조선시대에는 종2품으로 품계를 높였다. 관찰사가 행정 업무를 보는 관아를 감영(監營)·영문(營門)·순영(巡營)이라고 하며, 관원으로는 도사(都事)·판관(判官)·중군(中軍)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지방민에서 선출된 향리(鄕吏)로 하여금 감영에 속한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관찰사의 주된 업무는 임금을 대신하는 지방 장관으로 도내의 군사와 행정을 지휘 통제하였다. 따라서 각 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별도로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가 파견되어 있을 경우에도 관찰사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일부 국가의 인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지만, 관찰사가 관리하는 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도 내의 모든 수령(守令)을 지휘·감독하면서 수령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보고하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도 내를 순찰하면서 관리들을 규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러한 관찰사 제도는 지방 통치의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앙집권제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으로 전국을 23부로 구획할 때 각 부의 장관 이름이 되었으며, 내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이후 1896년 전국을 다시 13도로 편제하면서 각 도의 장관이 되었다가 1910년 일제에 강점당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지방별로 경기관찰사는 수원·광주(廣州)·서울에, 충청관찰사는 충주 또는 공주에, 경상관찰사는 경주(慶州)·상주(尙州)·성주(星州)·달성(達城:대구)·안동(安東)에, 전라관찰사는 전주(全州)에, 함경관찰사는 함흥(咸興)·영흥(永興)에, 평안관찰사는 평양에, 황해관찰사는 해주(海州)에, 강원관찰사는 원주(原州) 등지에 두었다.

<역대 관찰사>

| 구 분 | 계 | 조선시대 | 일제강점기 | 경기도지사 | 비 고 |
|-----|-----------|-------------|-----------|-----------|---|
| 대 | 689대 | 1대-644대 | 1대-12대 | 1대-33대 | 김문수 지사 |
| 기간 | 1393.3~현재 | 1393.3~1908 | 1910~1942 | 1946.2~현재 | 32대('06.7.1.~'10.6.30.) 33대('10.7.1.~현재) |

자료 : 실학박물관(www.silhakmuseum.or.kr).

7) 4목(광주, 여주, 파주, 양주), 7도호부(수원, 강화, 부평, 남양, 이천, 인천, 장단), 7군(양근, 풍덕, 안산, 삭녕, 안성, 마천, 고양), 19현(용인, 진위, 영평, 양천, 김포, 지평, 포천, 적성, 과천, 금천, 교동, 통진, 교하, 연천, 음죽, 양성, 양지, 가평, 죽산).

□ 구한말, 1895년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⁸⁾ 실시로 경기도는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의 영역에 속하다가 1896년 13도제⁹⁾ 실시로 경기도 부활

○ 1896년 8월 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3부 34군의 경기도 행정구역을 설치

일제 강점기와 해방이후 경기도의 변화

□ 일제는 1910년대 무단통치를 통해 식민지 기반을 구축, 조선총독부는 지방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지방통제력을 강화

○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공포, 전국 13도 체제는 그대로 두되, 그 아래 부·군과 면을 두는 체제로 지방조직을 개편

- 그 후 1914년, 1920년, 1930년에도 지방제도의 개정과 보완

○ 일제는 전국 13개 도를 그대로 두고 그 아래 부·군을, 말단 행정단위로 읍·면·리를 두어 크게 세 단계로 나눔

- 1896년 행정구역은 13도 7부 1목 134군, 그 후 1910년 개편에 의해 13도 11부 317군 4,388면

- 1914년 개편으로 기존의 군을 대폭 축소하고 면·리를 통폐합하여, 13도 12부 220군 2,518면 2만 8,181리로 1/3정도 동·리를 없앴

○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제도 개편 목적은

- 첫째, 종래의 전통적 부군제(府郡制)를 폐하여 부를 도시 행정의 기본 단위, 일본 거류민단과 각국 공동조계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일원화

- 둘째, 군과 면의 대대적인 치폐분합(置廢分合)을 통하여 군·면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고 경비를 절감

8) 전국을 한성부·인천부·충주부·홍주부·공주부·전주부·남원부·나주부·제주부·진주부·동래부·대구부·안동부·강릉부·춘천부·개성부·해주부·평양부·의주부·강계부·함흥부·갑산부·경성부 23개 부로 나눔.

9) 13도제는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실시한 지방행정도로 전국을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황해도·평남·평북·강원도·함남·함북 등.

- 셋째, 향회 등 기존의 조선인 향촌자치 기구를 무력화. 특히, 새로 설치한 면을 통치기구의 말단으로서 규정

□ 경기도는 여러 차례 지방행정구역의 부분적 개편을 거친 후, 1916년에 이르러 완결

- 종래의 4부 34군에서 1910년 개편에 따라 2부 36군, 1914년 개편으로 2부 20군 249면 2,741리 · 동으로 변동

- 경기도는 14개 군이 감소, 충남 · 충북의 일부 지역이 경기도 평택군과 이천군으로 편입

- 경기도는 3부(경성, 인천, 개성), 19군(고양, 부천, 시흥, 수원, 평택, 안성, 용인, 이천, 김포, 강화, 파주, 포천, 연천, 광주, 양평, 양주, 가평, 여주, 장단)을 관할, 읍을 8개(수원, 안성, 평택, 이천, 소사, 장호원, 여주, 의정부)군에 설치

□ 그 후 1945년 8월 15일, 3부 20군 10읍 229면으로 광복, 같은 해 11월 3일 38도선을 경계로 경기도는 3부 21군 10읍 231면으로 조정

- 경기도 연천군의 대부분과 가평, 포천, 파주, 장단, 개성, 개풍 등의 일부 지역이 북한지역으로 분리하고, 황해도 연백군과 용진군이 경기도에 편입

- 미군정당국은 일제가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억압, 말살하기 위해 시행해 온 법령을 제외하고는 종래 일제하에서 시행된 법령(『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을 그대로 시행

- 법령 제21호(1945. 11. 2)에 『모든 법률 또는 조선구정부가 발표,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실시 중인 것은 구문이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효력으로 존속』으로 명기

해방과 분단, 전쟁 이후 지방행정의 변화

□ 해방과 함께 새로운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의 제기로 해방 직후 전국 각지에서 자치기구들이 결성

○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 같은 해 8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천부, 개성부는 시로 이름이 변경,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

○ 6.25전쟁 이후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 시행

-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지역은 정식 수복하였으나,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용진군, 연백군의 5개 시·군 중 용진군의 2개의 면을 제외하고는 되찾지 못하였고, 경기도는 2시 19군 8읍 194면을 관할

○ 1960년대 근대화(近代化) 노선에 의해 경제성장의 시발점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기도의 모습도 함께 변화

- 1960년대 경기도 행정의 변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1963년, 경기도 지역이 서울특별시와 분리¹⁰⁾, 1967년 6월 23일에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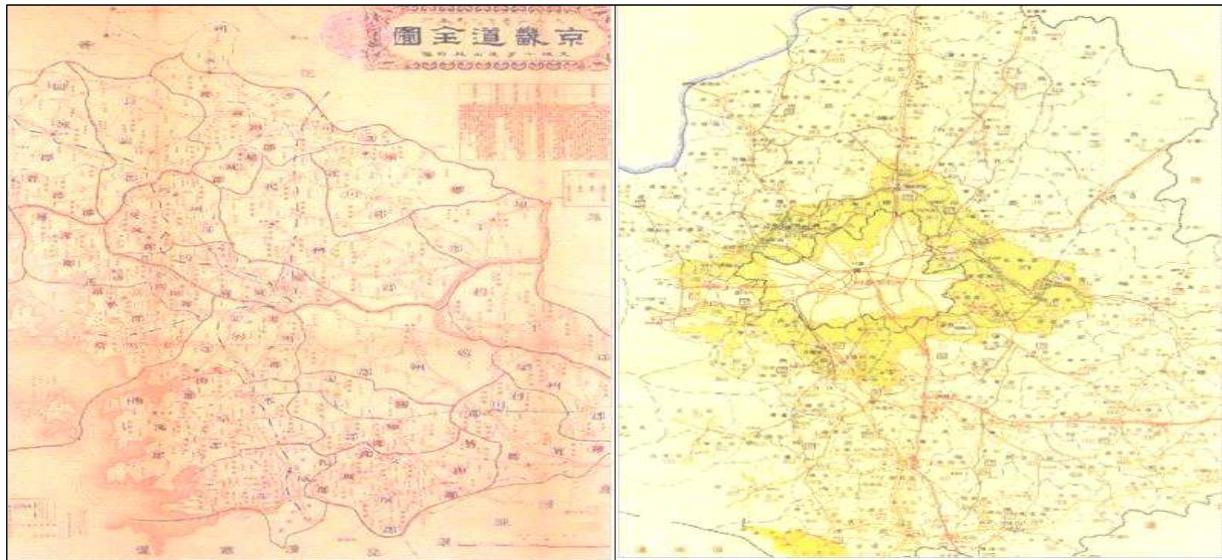
-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사의 위치는 1946년 경성부(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하고 경기도에서 분리되면서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었으나, 도청 이전을 계기로 서울로부터 벗어나 행정의 독립성 확보

○ 1973년 안양·성남·부천시의 신설과 부천군의 폐지로 경기도는 6개 시, 18개 군을 관할

10) 이 당시 경기도 관할 시·군은 3개 시(인천·수원·의정부)와 19개 군(양주·여주·평택·화성·시흥·부천·파주·고양·광주·연천·포천·가평·양평·이천·용인·안성·김포·강화·용진).

<1914년 경기도 전도>

<1975년 경기도 행정지도>



자료 : 경기도(2008). 『경기도 바로 알기』.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행정 제도의 변화

-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중앙정부 중심의 '시혜적' 개발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경기도 특성에 맞는 독자적 개발을 모색
 - 경기도의 지방자치는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와 1995년 4대 선거의 동시 실시로 본격화
 -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읍 단위가 시로 승격,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면서 규모가 작은 시가 인근지역의 군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28개 시, 3개 군을 관할
 - 28개 시(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양주, 화성, 광주, 포천, 안성, 김포, 여주), 3개 군(연천, 가평, 양평)

Ⅲ. 경기도 600년의 역사적 의미

경기도(京畿道) 정도(定道) 600년

- 2014년은 태종 14년(1414)에 경기도가 현재와 같은 영역이 정해지고, 경기도 라는 행정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지 600년이 되는 해
 - 2014년은 경기도(京畿道)가 행정구역으로 정립된지 600년, 2018년은 경기(京畿) 라는 용어를 사용한지 1,000년이 되는 해
 -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한국사 전개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에 경기도 600년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짐
 - 정치적으로 왕도인 한양을 지키는 최후 보루지역으로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북한산성과 같은 성곽이 모여 있으며, 경제적으로 한양의 경제적 기반
 - 경기도 지역은 아날로그 시대의 첨단도구부터 디지털 시대의 첨단기술까지 끊임 없는 변신과 진화의 진원지¹¹⁾
 -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수원 삼성전자와 파주 LG 전자, 화성·광명·평택의 기아·쌍용자동차 등 첨단기업이 입지

<왜 경기도(京畿道) 600년 인가?>

2014년은 '경기도'가 이 땅에 자리 잡은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60간지(干支)로 환산하면 10번째 순환을 맞이한다. 오늘날 경기도라 부르는 지역은 조선왕조 초기 지방행정의 큰 틀을 8도제(八道制)로 구분했을 때 정해진 것으로 이제 600년이라는 연륜을 지니게 됐다. 옛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는 원래 고대 진국의 땅이었으나 삼한으로 분리되면서 마한에 속했다.

백제가 기원전 18년 한강유역에 도읍을 세우고 등장하면서 경기도는 역사의 중심 무대로 등장하고, 고려가 1018년(현종9년) 수도 개경과 그 인근 지역을 묶어 '경기(京畿)'라는 이름의 행정구역을 처음 사용했다. 경기제(京畿制)가 중앙에서 분리되어 지방제도로 된 것은 고려 후기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가 성립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이 당시의 경기는 지금의 경기도 지역에 비하면 다소 북서쪽에 위치하고, 양과도 또는 충청도 북부지역이 현재 경기도 땅이었다.

이에 1414(태종14) 1월 관제를 고치며 경기를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로 합해 '경기도'라고 했다. 원래 '경(京)'은 천자의 도읍을, '기(畿)'는 천자가 직접 관할하던 도성 주위 1,000리(里)의 땅을 의미했다. 이러한 당나라 '경기제(京畿制)'가 고려 때 도입되면서 '근본의 땅(根本之地)', '사방의 근본(四方之地)' 등으로 인식됐다. 고려시대 처음 등장하고, 조선시대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경기도는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오늘날 경기도는 28개 시(市)와 3개(郡)를 거느리고 1천200만명이 거주하는 최대 광역자치 단체가 됐다.

자료 : "모든 길은 京畿로 ... 옛 부터 사통팔달 문화 중심지", 인천일보(2012.04.04).

11) "모든 길은 京畿로 ... 옛 부터 사통팔달 문화 중심지", 인천일보(2012.04.04).

산길, 물길, 들길, 바닷길 등 사통팔달(四通八達) 왕도의 땅

□ 조선시대 길은 경기로 통하고, 그 길은 치도(治道)이며, 왕도(王道)로 통하는 열린 공간

- 경기도길은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소통의 길이자, 창조의 길, 구도(求道)의 길
 -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금의환향한 길, 혼례를 앞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길, 전쟁의 슬픈 피난 길, 독립자금을 구하러 가던 의로운 길 등
- 오늘날처럼 조선시대에도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었으나, 이 모든 길은 경기도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영조 대에 간행된 관찬 백과사전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기준으로 하면 한양에서 전국 각지에 이르는 길은 크게 9개로 구분되는데, 이 모든 길은 경기도를 지남
 - 조선후기 실학자 신경준의 「도로고(道路考)」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6개의 육상로를 언급, 6개 교통로가 모두 경기도를 경유

<조선시대의 6대 교통로>

| 순 | 도로명 | 종점 | 주요 경유지 | 주요 분기점 |
|---|-----------|------------|---------------------------------|---|
| 1 | 경성서북저 의주로 | 압록강 (의주) | 홍제원-신원-고양-벽제역- 파주-동파역-장단-개성 | 신원-휴암점-교하 개성-죽백현-태성-벽란도 |
| 2 | 경성동북저 경흥로 | 서수라 (경흥) | 수유리-누원-축성령-송우- 포천-만세교-양문역 | 누원-전곡-연천-안협-이천 누원-비립원-양주-적성 |
| 3 | 경성동저평 해로 | 평해 | 망우리-평구역-봉안역-이수두리-양근-지평-전양형-송치 | 평구-청평-감천-가평-춘천 가평-홍적점-원주역-화천 지평-광탄-홍천-인제-간성 |
| 4 | 경성동남저 동래로 | 부산진 (동래) | 한강리-신원-판교점-용인- 김령장-양자-좌찬역-진촌-석원 | 용인-양성-안성 진촌-분행역-죽산-진천 경성-충주까지 직행 |
| 5 | 경성서남저 제주로 | 관두량(해남) 정의 | 동작진-과천-벌사근천-수원- 오산-진위-소사 | 노량진-시흥-안양리-벌사 근천점 시흥-안산 |
| 6 | 경성서저 강화로 | 강화 | 양화진-양천-김포-백석현- 통진-갑곶진-강화 | 양천-고음달내현-부평 고음달내현-성현-인천 |

자료 : 최영준 · 김종혁(1997).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경기지역의 교통로와 교통의 발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경기도에는 한강, 임진강, 안성천이 서해로 흘러 한강과 임진강이 하나가 되는 경기도의 강은 문화전파와 외적 침입의 중요한 통로¹²⁾

○ 한강은 강원도 태백산맥에서 발원, 충청북도와 경기도, 서울, 그리고 다시 경기도를 거치면서 서해로 유입, 임진강은 한탄강·영평천, 문산천을 합류하고 하류에서 한강하고 만나서 서해로 유입

○ ‘한강’은 내륙수로 국토 대동맥의 구실을 하면서 물자운반 중심, ‘임진강’은 비옥한 삶의 터전으로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

- 한강은 조선초 수도가 한성(漢城)으로 옮겨지면서 내륙수로 국토의 대동맥 구실을 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한반도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임진강은 남과 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철조망 아래로 흐르며,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판문점, 임진각 등 분단의 상징이며 통일의 상징

- 조선시대 한강은 물줄기를 통해 전국의 물자를 모았고, 외적의 침입을 막는 방패 역할, 임진강은 명나라 사신이 왕래하는 교통로이자 조선군의 군사도로 역할

<경기도 삼십칠관(동국여도)>

<경강부임진도(동국여도)>



주 : 1) 경기도 삼십칠관(18세기 초) : 한국사 최초로 축적을 표시한 지도로 강과 산이 만나는 곳에 마을이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음.
2) 경강부임진도 : 서쪽으로 강화와 풍덕, 즉,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점으로부터 임진강과 한강의 상류 지역까지 넓은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 본 형태로 그린 지도.
자료 : 1) “육지·물길을 잇는 신문명 통로, 수도 품은 ‘천년 왕도’의 땅”, 인천일보(2012.06.06);
2) “태백산 물줄기 따라 ‘홍망성쇠’ 역사 굽이치네”, 인천일보(2012.05.23).

12) “태백산 물줄기 따라 ‘홍망성쇠’ 역사 굽이치네”, 인천일보(2012.05.23).

팔도의 사람 · 정보 · 문화가 교류하는 소통처(疏通處)

□ 과거부터 전국 팔도의 물자와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상업적 농업과 상업, 수공업이 발달¹³⁾

○ 경기도 지역은 정치적 중심지가 되면서 아울러 경제적으로 물자유통의 중심지로 한강을 비롯한 수로교통상의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

- 역대 왕조들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서 전국으로부터 부세를 거두어 중앙으로 집중한 다음, 녹봉 · 진휼 · 군수 등의 형식으로 다시 분배하는 체제
- 이로 인해 고려시대 이래로 수도를 둘러싼 경기도지역은 역로(驛路)와 조운(漕運)이 모여드는 물자유통의 중심지로 수많은 장시장이 형성

○ 중국과의 교통이 편리하여 일찍부터 대외무역을 비롯한 상업이 발달

- 고려시대에는 예성강 벽란도(碧瀾渡)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번성
- 조선시대에는 송도상인 · 경강상인이 활발하게 활동,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인 광주 사평장, 송파장, 안성장, 오산장, 교하 공릉장 등지에서 상업이 크게 발달

| <조선시대의 상업> | <송파장(상), 안성장(하)> | |
|------------|------------------|---|
| | | <p>송파장은 동북지방과 삼남지방의 상품이 올라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크게 번창 정선 그림</p> |
| | | <p>1920년대 안성읍내의 모습</p> |

자료 :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13) 경기도(2008). 『경기도 바로알기』, pp.198-199.

□ 대한민국 산업화의 거점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견인차(牽引車)로서의 역할 수행¹⁴⁾

- '경인공업지역(경인·경수 산업단지)'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공업이 태동함에 따라 경제 도약과 고도성장의 주요 거점
 - 수원의 삼성전자, 용인·화성의 삼성반도체, 파주의 LG디스플레이, 이천의 SK 하이닉스 등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중심
- 과거 아날로그 굴뚝산업단지는 디지털 첨단·정보통신산업으로 진화
 - 수원 삼성은 디지털 벨리, 안양 대한전선은 스마트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첨단 R&D와 벤처 단지로 진화

□ 경기도의 학문과 사상의 흐름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구심력 있고 통일적인 모습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역할¹⁵⁾

- 조선시대,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난 성리학과 실학의 경향은 보수화된 사회에서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비판적·실천적인 사상운동
 - 경기도는 성리학(性理學)과 실학(實學)의 중심지로서 조선의 정신적 기둥
- 조선전기에는 성리학이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 성리학은 조선 사회를 이끈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
 - 개성과 임진강 유역이 진취적 성리학의 중심지였으며, 대표적인 학자가 파주의 율곡 이이
- 조선후기에 들어 성리학에 한계를 부딪치자 기존의 성리학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학이 발생, 실학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발전
 - 광주, 양주, 수원, 안산 일대에 기라성 같은 실학자들이 나타났으며, 실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안산의 성호 이익, 남양주의 다산 정약용

14) 경기도(2008). 『경기도 바로 알기』, p.26; 경기도사편찬위원회(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 pp.338-402.

15) 경기도사편찬위원회(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 pp.14-15.

- 조선중기 이후, 유교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던 시대상황에서 경기도 지역은 서학(西學)의 수용으로 선교사들의 사목활동 장소이며, 천주교가 전파된 장소¹⁶⁾
 - 서양문물과 함께 전래된 카톨릭교에 대해 유학자들은 종교생활의 대상이 아닌 학문적·사성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흥미를 가짐
 - 카톨릭교는 그 의식 및 교리가 조선시대 지방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유교와 상치되는 점이 많아 사교로 인정, 1786년(정조 10년) 이래 계속 탄압
 - 신유박해(1801년), 기해박해(1839년), 병오박해(1846년), 병인박해(1866년) 등 4대 박해 때 배출된 수많은 순교자들의 성지가 경기도내 곳곳에 위치
 - 안성 미리내성지, 광주 천진암성지, 수원 북수동 성당, 화성 남양성모성지, 이천 어농성지, 양평 양근성지, 안양 수리산 성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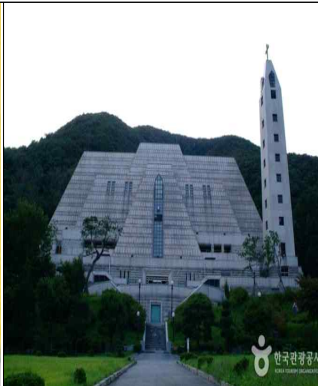
<파주 울곡 이아>



<남양주 다산 정약용>



<안성 미리내성지>



<광주 천진암성지>



자료 : 1)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3) 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 4) “순교자 성월 9월...국내 순례지로 떠나보자”, 영남일보(2013.09.05).

지리적으로 창과 방패가 부딪치는 곳으로 정치주체가 바뀌면 전쟁터가 되었고, 국운이 기울었을 때에는 이를 극복하는 국난극복의 현장

-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근기사진(近畿四陣 : 서울을 지키는 요충지 4곳), 매초성 전투(신라가 20만 당나라 대군을 격파하고 삼국통일을 완성한 싸움) 등
- 17세기 전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3.1운동과 위정척사운동, 의병운동의 거점이 되어 민족의 기상을 고양

16) 네이버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IV. 경기도의 미래와 비전

- 오늘날, '경기도'의 창조적 정체성은 '경(京)의 기(畿)'에서 '아시아의 기(畿)'를 지향
 -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을 형성하며, 근대화의 중심지, 역동성의 근간으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
 - 수도권의 경기(京畿)를 넘어 아시아의 물적, 인적 자원과 정보가 들고 나며 순환되는 곳으로서 아시아의 기(畿)를 지향
 -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며 매우 빈번히 들고 나는 곳으로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지향하고, 비전에 반영
- 통일 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인 경기도가 통일 한국의 중심 무대로 도약
 - 분단시대에 남·북한을 이어주는 교류 창구가 관문점이듯이 이질화가 심화된 남·북한 사이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해가는 역할이 기대
 - 경기도는 분단의 상징이 아닌 통일의 상징으로서,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
 -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의 마련 가능
- 경기도의 매력적인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콘텐츠화하여 경기도의 전통과 특색을 담은 문화로 발전
 - 경기도 600년을 맞아 역사문화 자원을 계승 발전하고, 콘텐츠화하여 경기도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력으로 발전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한 문화자원을 통해 경기도의 부가가치 창출과 이미지 제고, 정체성 확립
 - 2006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100대 민족문화상징」 중 경기도의 대표 문화 자원은 수원화성, 정약용, 비무장지대(DMZ), 효, 백자 등
 - 분단의 현실을 극복함과 동시에 녹색성장시대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구상
 - 일례로, 분단의 민족적 상처를 DMZ라는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과거를 연계하여 구상
- 민선 부활이후 지방자치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첨병이자 보루
- 경기도 지방자치·분권의 성패는 지역발전, 지역개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족자치의 시금석으로 작용
 - 경기도의 21세기는 민족자치를 책임진다는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지방분권
 -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 필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과 지방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배분을 8:2에서 6:4로 확대
 - 국세 위주로 편중된 현행 조세체계는 지방법인세 도입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
 - 지방자치의 주인이자 지방분권의 수혜자는 지역사회와 주민들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자기책임을 통한 자율적 주민참여 확대
 - 주민 소통형 스마트 도정과 안락한 삶을 위한 무한복지 구축

【 1895년~현재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천 】

| 1895년 | | 1896년 | | 1914년 | | | | 해방당시 | | 현재(2013) |
|---|---|--|---|----------------------------------|----------|------|---------------|--------------------------------|-----------|--|
| 23부 336군제 | | 13도 7부 1목 34군 | | 13도 12부 220군 2,518면 3만 8,181리 | | | | 13도 21부 218군 2도 107읍 2,243면 |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
| 8도제 폐지 | | 경기도 4부 34군 | | 부·군명 | 부·군청 소재지 | 면수 | 동·정·리 수 | 부·군명 | 부·군청 소재지 | 74시 84군 216읍 1,198면 |
| 한성부 (한성) | 한성군 양주군 광주군 적성군 포천군 영평군 가평군 연천군 고양군 파주군 교하군 | 1등 (4부) |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 인천부 | 경성부 | 경성 | | 186 동·정(町) | 경성부 | 경성 | 서울특별시 25구 |
| 11군→ 뒤에 가평은 포천 교하는 파주에 병합 | 인천부 (인천 제물포) | | | 인천부 | 인천 | | 46리·동 | 인천부 개성부 | 인천 개성 | 인천광역시 8구 2군 |
| 12군→ 뒤에 교동은 강화에 병합 | 인천부 (인천 제물포) 12군→ 뒤에 교동은 강화에 병합 | | | | | | | | | |
| 개성부 (개성) | 개성군 삭녕군 장단군 이천군 안협군 토산군 평산군 금천군 수안군 곡산군 신계군 풍덕군 마전군 | 2등(1군) 수원군 | 고양군 부천군 시흥군 수원군 진위군 안성군 용인군 이천군 김포군 강화군 파주군 개성군 포천군 연천군 광주군 양평군 양주군 가평군 과천군 양지군 교동군 | 경성 | 관청리 | 12 | 155 | 고양군 | 경성 인천 | 수원시/성남시 의정부시/안양시 부천시/광명시 평택시/동두천시 안산시/고양시 과천시/구리시 남양주시/오산시 시흥시/군포시 의왕시/하남시 용인시/파주시 이천시/김포시 여주시/연천군 가평군/양평군 |
| | | 3등(4군) 여주군/양주군 장단군/통진군 | | 영등포 | 9 | 83 | 부천군 | 경성 수원 | | |
| 13군→ 뒤에 풍덕은 개성 마전은 삭녕에 병합 | | 4등(29군) 파주군/이천군 부평군/남양군 풍덕군/포천군 죽산군/양근군 안산군/삭녕군 안성군/고양군 김포군/영평군 마전군/교하군 가평군/용인군 음죽군/진위군 양천군/시흥군 지평군/적성군 과천군/연천군 양지군/양성군 교동군 | 평택 | 11 | 128 | 시흥군 | 안성 | 평택군 | 안성 김량장 | |
| | | | 안성 | 12 | 170 | 수원군 | 안성 | 안성군 | 김량장 | |
| | | | 김량장 | 12 | 115 | 평택군 | 김량장 | 용인군 | 이천 | |
| | | | 이천 | 11 | 132 | 안성군 | 이천 | 이천군 | 김포 | |
| | | | 김포 | 9 | 88 | 용인군 | 김포 | 김포군 | 강화 | |
| | | | 강화 | 14 | 96 | 이천군 | 강화 | 이천군 | 문산 | |
| | | | 문산 | 11 | 84 | 과천시 | 문산 | 과천시 | 개성 | |
| | | | 개성 | 16 | 104 | 남양주시 | 개성 | 남양주시 | 서면 | |
| | | | 포천 | 13 | 88 | 시흥시 | 포천 | 시흥시 | 대병리 | |
| | | | 연천 | 13 | 111 | 의왕시 | 연천 | 연천군 | 경안면 | |
| | | | 광주 | 16 | 183 | 용인시 | 광주 | 광주군 | 경안리 | |
| | | | 양평 | 12 | 112 | 파주시 | 양평 | 양평군 | 양평 | |
| | | | 의정부 | 16 | 148 | 과천시 | 의정부 | 과천시 | 시둔면 | |
| | | | 가평 | 6 | 47 | 의왕시 | 가평 | 의왕시 | 의정부리 | |
| | | | 여주 | 10 | 159 | 여주시 | 여주 | 여주시 | 가평 | |
| | | | 장단 | 10 | 67 | 가평군 | 장단 | 장단군 | 여주 | |
| | | | | | | 장단군 | | | 진남 | |

자료 : 경기도사편찬위원회(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